

開幕式-主席致詞(XX市政府文化局黃XX副局長)

회장인사말(타이중시청문화국 黃 XX 부국장님)

大家早安，歡迎遠從韓國以及來自臺灣各地的現場貴賓，韓國與臺灣飛行航距雖然僅有 2 小時，但長久以來來天然染色界鮮有互動，這幾年在韓國天然染色博物館與 XX 市政府文化局持續友善合作，於 2013 年至 2017 年期間，一年韓國一年臺灣輪流舉辦「臺韓天然染色交流展」，不僅提供兩國染色專家與民眾互相觀摩學習的機會，也有互相提升的積極作用，韓國感受到臺灣多樣化的編織風貌，臺灣也感受到韓國天然染色產業永續經營的實力。

내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대만까지의 비행시간은 2 시간이 걸리지만 오랫동안 대만과 한국 천연염색단체 상호간의 교류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타이중시청 문화국 간의 교류를 유지하여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1년은 대만에서 1년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만한국 천연염색교류회를 계속 하고 있고, 양국 간의 염색 전문가와 일반 민중간의 서로 학습하고 돕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만 편직의 다양화를 느낄 수 있고 대만에서도 한국 천연 염색산업의 경영 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XX 市纖維工藝博物館於 2018 年 10 月 17 日正式揭幕營運，很高興韓國清道郡天然染色發展研究會 18 名成員特地組團前來。今日的「2018 臺韓天然染色交流座談會」歡迎韓國羅州市天然染色博物館許北九營運長、韓國清道郡天然染色發展研究會、天 X 工坊陳景林老師、X 染工坊謝國鵬老師等貴賓，以及所有韓臺專業人士 160 餘人參與的專題分享及技藝示範。

타이중시 섬유공예박물관은 2018년 10월 17일에 개관하여 정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청도군 천연염색발전 연구회 18분회원연러분이 특별히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나주시 천연염색박물관과 허북구

운영장님, 대만 천연공방陳景林先生님, 안염공방謝國鵬先生님 등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총 160 여명의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및 기술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文化局纖維工藝博物館·未來將持續扮演臺韓天然染色交流的平臺·也會擴大與其他東亞各國·如日本、印尼、泰國、菲律賓等相關從事天然纖維、天然染色開發的專業進行交流·期望纖維博館能與世界各國間扮演穿針引線的角色·呈現纖維工藝發展的無限可能！感謝與會貴賓前來·提供我們非常寶貴的經驗分享·最後預祝活動順利圓滿·謝謝大家。

타이중 문화국 섬유박물관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대만과 한국 양국의 천연염색 교류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넓게는 동아시아 각국, 예를 들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와 교류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이중 섬유박물관은 대만과 전 세계 국가 사이의 인솔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대만 섬유공예산업의 발전을 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이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閉幕式

The End 圓滿結束

感謝與會的貴賓，不論是遠從韓國或來自台灣各地的好朋友，今天很開心能夠邀請大家齊聚在纖維工藝博物館！

오늘 대회에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특히 멀리 한국에서 대만까지 오신 귀빈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타이중 섬유박물관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今年大家都辛苦了而且都有滿滿的豐收，我們也在市府及文化局團隊努力下，讓編織工藝館圓滿轉型成為臺中市纖維工藝博物館，實現多年的願望。

올해는 여러분들 다 애 쓰셨고 수확도 곱 차고 있습니다.

우리도 몇 년 동안 계속 노력해서 오늘날에 편직공예관이 타이중섬유공예박물관으로 전형할 수 있습니다. 몇년동안의 소원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因此趁者韓國清道郡天然染色研究會來訪的機會，由本中心同仁籌辦了這個活動，讓大家好好相聚，除分享這一年來努力的成果，並且感謝大家長期以來對於編織工藝館的支援，未來也希望能與纖維工藝博物館攜手往前邁進！

今天的活動，即將在聖誕歌曲中結束，最後祝福大家平安快樂！

따라서 청도군 천연염색 연구협회 방문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 행사는 모두가 함께 기쁘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센터의 동료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의 노력 결과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편직공예관에 대한 오래동안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섬유 공예박물관과 손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이 크리스마스 노래 방송중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안녕히 가세요!